

영성교육에 있어서 창의성의 문제 : 창조영성의 창의성에 대한 종교학적 이해

최대광
감리교신학대학교

【요약】

영성수행에 있어서 명상과 묵상은 보편적인 방법이었지만, 창의성은 기독교의 영성과 교육에 있어서 중심이 된 적이 없었다. 이 논문은 미국의 영성신학자 매튜폭스가 재구성한 서양 기독교의 창조영성을 소개하면서, 창의성이 영성수행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신과 인간의 영역, 육체와 영혼을 이분화시키고 인간을 죄인으로 억압하여 수동적으로 신의 은총을 기다려야 하는 서양 기독교의 주류전통인 타락/구속의 영성전통을 비판하고 창조영성을 통한 신과 인간의 불이론적 영역을 소개하며, 이 공통의 장에서 나오는 창의성과 예술정신이 영성수행의 중심임을 주장하고 있다. 창의성교육을 수강한 학생들의 피드백을 소개하면서, 이 논문은 창의성이 영성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창의성교육은 학교와 교회에서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핵심주제어: 기독교영성, 기독교 신학, 창의력, 놀이, 수행, 종교학

I. 서론

영성 혹은 수행이라는 기표가 떠올랐을 때, 직관적 기의는 명상이나 기도일 것이다. 펼쳐진 세상을 보면서 마음을 쓸 때, 수많은 관념적 허상이 마음을 괴롭힐 것이고, 이것이 불성이나 신성을 깨닫거나 체험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눈을 반쯤 감던

지 완전히 감던지 대상적 세상과 거리를 두는 명상적 혹은 관상적 방법을 영적수행이라고 이해할 것이다. 물론 불교로 대표되는 동아시아의 종교와 철학전통이 이해하는 세계관과 서양의 세계관은 완전히 다르지만 말이다. 명상을 중심으로 한 행위와 노동을 어떤 형태로 일치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 수도원이나 사찰의 수행방식이겠지만, 예술의 뿌리가 되는 상상력과 창의성은 특히 서구의 영성 전통에 있어서 별로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먼저 ‘영성’이라는 말은 서구의 발명품임을 밝혀둔다. 서구 기독교의 영역에서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출발했다고는 하나, 기독교의 성서 안에서도 ‘영성’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육과 상반된 정신의 영역으로 취급되다가,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영성’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영성’ spirituality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성서에도 없을 뿐더러, 이를 사용하였던 사람들이 워낙 다양한 전제를 가지고 해석했기 때문에, 쉽게 정의 내릴 수 없다. 심지어 조셉 호프만의 경우, “영성은 누구나 정의 내리면 그것이 곧 영성의 뜻이다”¹⁾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의 울술라 킹은 ‘영성’이라는 새로 개척된 학문적 분야야 말로, 포스트 모던적인 학문 방법이라고 말한다. 보편적인 정의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체험’과 ‘주장’들이 상호교차하며, 서로 연결되고 분리된다고 하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제창하고 있는 다양성과 다원성은 영성의 특징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영성은 단일하게 정의되지 않고, 다원적이고, 풍부하며, 때때로 어떤 특별한 시간, 장소, 문화에 따라 그 의미에 있어서 모순되게도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다양한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과거나 현재 다양한 영성이 존재해 왔다. 각각의 종교들은 어떤 독특한 종교적 이상을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해석하는, 다양한 영성학파가 존재해 왔던 것이다.²⁾

매튜 폭스의 폭넓은 정의에 의하면, 영성은 “삶의 방법(a way of Life)”³⁾이라고 까지 했다. 곧, 영성은 주로 종교의 영역 중 체험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부분에 연관되어 있

1) Joseph Hoffmann and others, *Modern Spiritualities: An Inquiry*, (Oxford, England: Prometheus Books, 1997), 10

2) Ursula King, “Spirituality in a Postmodern Age,” in Ursula King ed., *Faith and Pax in a Postmodern Age*, (London: Cassell, 1998), p. 96

3) Mathew Fox, *Creation Spirituality: Liberating Gifts for the People of the Earth*, (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 1991), p.13

고, 종교는 이를 포함하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조직의 영역으로 치우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더욱 구체적인 접근은 길희성의 이해가 가장 적당할 것이라고 본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종교와 영성의 차이는 무엇일까?

종교는 우선 집단적 현상인 반면에 영성은 주로 개인적이다. ‘나홀로 종교’란 있을 수 없다. 종교는 집단적이기 때문에 조직과 제도를 필요로 하며, 조직과 제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도자와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종교도 집단이고 체제인 이상 타 집단으로부터 자기를 차별화하고 자기만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과 제도를 갖추고 신자들을 관리해야하며 사상과 교리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종교는 필연적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배타성을 떨 수 밖에 없다.

새로운 종교운동을 시작한 카리스마 넘치는 창시자들은 기성종교에 대해 비판적이고 개혁적이며 사상과 행동에서 자유롭고 유연하지만, 추종자들이 늘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각종 규율이 생기고, 제도와 체제가 강화된다. 어쩌면 종교는 성공이 곧 실패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초기에 지녔던 순수성과 자유로움과 창조성은 사라지고 신도들을 관리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자유를 규제하면서 점차 억압적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⁴⁾

길희성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영성이란, “조직과 집단의 논리가 아닌 신 혹은 실제와의 만남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이에 따라 사는 것”이며 종교는 이를 조직화 한 것이나, 추종자가 생기고 다음세대로 넘어가면서, 체험과 삶보다 조직과 집단의 논리가 중심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종교적’이라는 말은 ‘조직적’이라는 말이 될 것이며, 영성적 이라면 ‘체험적, 실천적’이라는 말이 될 것이다. 종교적인 사람 이라면, 조직에 참여하기 위해 조직과 교리의 요구에 맞는 헌신을 해야 할 것이지만, 영성적 이라고 하면, 조직과 교리의 논리가 느슨하고 대신 실제와의 관계와 삶의 체험이 중심이 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모든 종교 안에 영성이 있으며, 조직과 교리의 논리에 따른 삶의 방식보다, 체험과 실천에 따른 삶의 방식을 택한 사람들은 영성적 혹은 영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좀 더 첨예화 된다면, 아예 조직을 나오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논문에서 기독교 영성 하면, 신과의 관계와 그에 따른 실천

4) 길희성, 『길은 달라도 같은 산을 오른다』(서울: 휴, 2013), 189쪽.

중심의 논리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앞으로 밝히겠지만, 기독교의 신학전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어거스틴의 원죄론은 영과 육의 이분법적 이해를 강화시켰으며, 특별히 구원이란 타락한 육체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신의 절대적 은총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이 신학의 틀 안에서 발생한 기도와 기도문은 수동적인 자기 비움의 기도만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플라톤은 그의 대표적인 국가 10장에서 시인과 같은 예술적 표현을 “실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재와 같은 그런 것이되 실재가 아닌 어떤 것”⁵⁾이라고 했다. 직관적 ‘지성’이 아닌 존재주꾼의 형상에 대한 표현은 이데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세 살과 네 살, 다섯 살, 그리고 더 나아가 여섯 살 까지도 아이들의 혼의 성향에는 놀이가 필요”⁶⁾하다고 했다. 아이들의 대표적인 행태가 모방이듯, 예술 역시 이데아의 모방이라는 것이다. 예술과 상상력 그리고 놀이정신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런 지성적 흐름을 통해, 기독교에서는 기도와 수행을 통한 신 혹은 이데아를 관상하는 것이 가장 지고한 행위가 됐으며, 상상력과 창의성은 ‘어린이의 것’이 되어 왔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예술의 근원인 상상력과 창의성이 과연 영성 형성에 있어 중요한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영성신학자 매튜 폭스의 창조영성을 통해 ‘창의성’(creativity)이라는 부분이 영성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논의할 것이며, 이것이 어떤 교육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매튜 폭스가 재구성한 창조영성은 서양기독교의 보편적 구조, 곧 아담의 원죄는 성교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유전됐으며, 성교 없이 태어난 신/인간 (homoousia)인 예수의 가교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구조가 아닌, 신의 창조는 곧 ‘은총’이며, 이 은총은 모두에게 해당한다는 것이다.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의 원죄는 창세기 제 3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창세기 1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신의 형상 곧 모상으로의 신의 창조 곧 예술적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신의 창조는 곧 ‘말씀’에 의한 창조다. 곧 신의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창조이며, 마이스터 엑카르트스는 이를 ‘낭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곧 인간과 피조물은 낭음을 통해 존재하며, 특히 사람에게는 신의 형상이 있어, 구원이란 그 형상의 회복, 본래 모습을 찾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매튜 폭스는 이를 찾아가 살아내는 방식을 “영성의 길”이라고 했다. 수행적

5) 플라톤, 박종현 옮김, 『국가』(서울: 서광사, 2017), 615쪽.

6) 정낙림, 『놀이하는 인간의 철학』(서울: 책세상, 2017), 85쪽. Plato, *Nomoi*, 793e 재인용.

길인 도(道)는 모든 종교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발견되지만, 폭스는 긍정의 길, 부정의 길, 창의성의 길, 변형의 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신의 형상을 찾아나가, 신의 형상으로 사는 수행을 제시하였다. 앞의 두 길은 신의 형상을 찾아내는 존재의 길이라면, 뒤의 두 길은 신의 형상적 존재로 살아내는 방식을 다루고 있다.

창의성은 서구의 영성전통에서 도외시되어, 실질적으로 영성과는 다른 분야인 문학과 미술 그리고 음악 안에서만 존재해 왔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폭스의 생각을 받아들이며, 창의성이 영성형성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밝혀 낼 것이다. 특별히, 교육적 분야에 있어, 현대의 교육은 거의 대부분, 실용적이거나 피상적이기 때문에, 창의성 중심의 영성교육이 삶에서 마주대하는 혼돈과 공허를 극복하고, 자기 자신과 주변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길이라는 것을 밝혀 낼 것이다.

II. 본론

1. 창의성과 예술, 영성 수행의 방편일까?: 타락/구속의 영성전통과 창조중심의 전통

서구 기독교 영성의 역사 속에서 창조영성을 축출하여 그 전통을 재구성한 미국의 영성신학자 매튜 폭스는 “내가 알기로는 서구에서 창조의 길 (Via-Creativa)을 영적 순례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명명한 사람은 내가 유일하다”⁷⁾고 했다. 상상력과 예술적 창의성은 서구 영성사의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창의성의 발현인 예술이 신앙과 영성에서 도외시 되지는 않았음은 물론이다. 교회의 음악과 미술이 서구의 예술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범위는 실로 방대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예술의 뿌리인 상상력과 창의성은 영적 수행의 역사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이들은 영적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종교개혁 이후에는, 악기를 교회에서 쫓아내던가, 프레스코화나 스테인드글라스를 교회건물에서 축출했다. 종교개혁 이후, 어거스틴주의가 개혁신학의 구조적 틀이 되면서, 신이 구원의 절대성의 위치에 놓이게 되면서, 창의성이 아닌 복종과 순응이 신앙의 중심에서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신적 진리의 경건성을 권력적으로 주장했던 중세나, 이에 저항하여 문자의 해독을 중심으로

7) Fox, Matthew, *Original Blessing*, (New York: Jeremy P. Tarcher/Putnam, 2000), p. 183.

권력적 경건성을 대중에게 건네주었던 근세에서나, 영성은 항상 무겁고 거룩한 그 무엇이었다. 더군다나, 근대에 신의 자리를 대신한 진리를 추적하는 철학적 뿌리도 데카르트가 체계화한 이성이었다. 생각하여 내가 존재 한다 (Cogito ergo sum), 곧 내 존재성의 명석타당함은 이성이기 때문에, 비이성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것은 오류가 됐다. 이성이 상상력을 억압하는데 일조한 것이다. 이에 관해 진중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넌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합리주의자들은 상상력을 억압하려고 했다. 데카르트에게 상상력은 그저 ‘오류의 근원’일 뿐이었다. 가령 상상의 동물 용(龍)을 생각해 보라. 그것은 뱀의 몸통에, 도마뱀의 다리에, 사슴의 뿔을 결합한 것이다. 이런 동물이 실제로 존재할 리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상상의 산물을 현실의 존재로 착각하곤 한다. 데카르트에게 상상력은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양 표상하는 오류를 의미했다.⁸⁾

상상력은 합리와 상관없는 오류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결국 비합리의 영역과 낭만주의에 억지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이성적 사유가 중심이 된 시절 이후부터, “사물과 사물의 결합은 자유로운 연상이 아니라 인과법칙의 사슬에 묶이게 된다”⁹⁾고 진중권은 말한다. 이미 양자역학이 밝혀낸 것과 같이 우연과 관찰자의 시각이 눈에 보이는 사물의 기초라고 알고 있는 지금, 합리성이라는 이름이 또 다른 신화가 된 것이다. 무의식이 느슨해진 예고를 뚫고 올라오는 생각과 콤플렉스의 덩어리가 형상화 한 꿈이 합리적일 수 없으며, 이런 비합리적 상상의 결합이 인간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것이 서로 서로 부딪히거나, 합리적이라는 단면과 결합되어 창의적이 될 수 있지만, 결국 현대주의는 이성을 통해 상상력을 막아서는 결림돌이 된 것이다. 이에 이 합리를 깨는 아방가르드나 초현실주의나 다다이즘의 시도가 있어왔지만, 교회의 권력이 사라진 곳에 이성과 합리의 이름이 성직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중세의 교회중심의 엄격한 서구의 세계가 오히려 가장 놀이정신이 발달된 시대이듯, 상상력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소설, 영화, 인터넷에서 온갖 판타지가 부활하여 범람”¹⁰⁾하는 것만 보아도, 이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다.

8) 진중권,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서울: 휴머니스트, 2005), 2쪽.

9) 위의 책, 32쪽.

10) 위의 책.

사유의 영역에서 합리와 이성이 그 중심을 차지하며, 상상력을 막아서 궁극적으로 창의성을 막았다면, 기독교 안에서의 영성전통 역시 상상력과 별 상관이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 미국의 영성신학자 매튜 폭스는 서구의 영성형성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강조한 어거스틴의 원죄론과 이에 필연적인 부가물인 타락/구속의 영성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기독교적 신학 전통에서 악의 출현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에 관한 논란은 사실 계속되고 있다. 곧 창세기 3장이 원죄에 관해서 기록한 글이 아니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과 생명체의 운명에 대한 우화적 글이라는 것이다. 도미니크 크로상에 의하면, 창세기 제 3장은 생명나무와 선악과 둘 중에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어 낙원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이 신화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에 대한 신화적 기술이며, 이 인생 속에서 선과 악의 선택에, 선을 택하며 살라는 교훈이라는 것이다.¹¹⁾ 크로상의 주장만 그런 것이 아니다. 실제로 어거스틴 이전의 교부들은 창세기 3장을 그렇게 읽어 왔다. 그러나 프린스턴 대학교 종교학과 교수인 일레인 페이걸스에 의하면, 어거스틴이 창세기 제 3장을 독특하게 읽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담과 이브 이야기를 이전의 대다수 유대인과 기독교인들과는 다르게 읽었다. 수세기 동안 인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로 읽혔던 아담과 이브 이야기는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 인간의 속박이야기로 바뀌게 된다.”¹²⁾ 곧, 어거스틴은 “모든 인간은 죄에 의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본성을 아담에게서 물려받았다”¹³⁾ 고 말한다. 이 육체는 애초에 영혼의 통제를 받고 있었지만, 영혼에 맞서 봉기를 일으켰으며 육체에 의해 영향을 받은 “영혼은 자신의 자유를 통해 사악한 쾌락을 느낀다”¹⁴⁾라고 했다. 육체의 반란이란 성욕을 뜻한다. 어거스틴의 이와 같은 주장에, 율리아누스는 “아담과 이브는 낙원에서 죽음과 성욕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다고 한다. 죽음과 성욕은 ‘태초에는’ 자연의 섭리였기 때문이다”¹⁵⁾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아담과 이브의 의지에 따른 행위를 통해 우주의 섭리를 변화시켰는데, 의지에 따른 단한번의 행위가 보편적 자연은 물론 인간의 본성까지도 타락시켰다”¹⁶⁾ 곧 인간의 의지는 원죄 이전에도 타락했으며, 이 타락은 우주 전

11) 크로산, 도미니크,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서울: 한국 기독교연구소, 2015), 63-86쪽 참고.

12) 페이걸스, 일레인, 『아담, 이브, 뱀』(서울: 아우라, 2009), 26쪽.

13) 위의 책, 208쪽.

14) 위의 책, 210쪽.

15) 위의 책, 247쪽.

16) 위의 책, 248쪽.

체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선함을 파괴시킬만한 엄청난 것이었다.

어거스틴의 논리에 의하면, 성성에 의해 탄생했고 성욕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구제 불능이다. 성적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의 은총 외에 인간을 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성교 없이 태어난 예수가 신과 인간을 잇는 구속자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죄로 인해 파멸한 인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외부의 간섭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은, 세속의 권력을 정당화 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강압적인 형태를 띠는) 교회의 권위 역시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¹⁷⁾

타락/구속의 전통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신의 은총만 바라는 수동적 존재가 되었기에, 매튜 폭스는 “원죄는 창의성의 억압을 뜻한다”¹⁸⁾라고 말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대의 합리주의와 기독교전통의 타락/구속 전통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서구 기독교는 창의성과 상상력을 억압한 두 주범이 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폭스는 ‘타락-구속’의 구조와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전통을 소개한다. 창조영성의 전통이 그것이다. 미국의 생태여성신학자인 메리 힌스데일은 창조영성의 중심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매튜 폭스는 기독교 안에 두 개의 경쟁적 영성 전통인 타락/구속의 전통과 창조 중심의 전통이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전자는 어거스틴을 종주로 사고, 후자는 이레니우스가 그 뿌리다. (창조영성에 의하면) 자연은 타락한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다. 제 2의 바울 신학적 변증을 하고 있는 이레니우스는 속죄로써의 구원을 강조하지 않고, 충만한 전체가 되는 것 (pleroma), (그리스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anakephalaiosis).¹⁹⁾

신과 인간의 관계가 일방통행적으로 타락/구속의 역설적 변증법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의 창조에 동참하고, 조화롭게 되는 것이라는 이레니우스의 전체 (pleroma)와 총괄갱신 (anakephalaiosis: recapitulation)은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를 신학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인간의 내면적 죄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고

17) 위의 책, 233-234쪽.

18) Fox, Matthew, *Creativity* (New York: Jeremy P. Tarcher, 2002), p.5.

19) Mary Heather MacKinnon and Moni McIntyre ed., *Readings in Ecology and Feminist Theology*, (Kansas City: Seed & Ward, 1995), p.203.

부활하셨다는 타락/구속 전통의 논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갱신된 창조에 인간을 참여하게 한다는 전혀 새로운 시각인 것이다. 곧 어거스틴은 인간의 원죄가 신과 인간을 분리시켜, 신의 은총에 의한 구원, 곧 타락하여 멸망할 세상에서 건져내는 (deliverance) 것이지만, 이레니우스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회복된 창조에 사람이 새롭게 참여한다는 것이다. 건져냄으로의 구원이 아니라, 갱신됨으로의 구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타락/구속 전통의 건져냄의 구원은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고 있지만, 후자는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하나로 보는 불이(不二)적 세계관 속에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전자는 저 세상을 중심으로 영성을 구성하지만, 후자는 이 세상을 중심으로 영성을 구성한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저주 받은 땅에 있는 인간을 하늘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폭스에 의하면, 건져냄 중심이 아닌 갱신 중심의 창조영성가들은 전통이 주류가 아니라면서 그들의 계보를 아래와 같이 들고 있다:

창조중심의 영성 전통이 아직까지 서구교회에서 끊임없이 억압되어 왔다. 이레니우스와, 힐데가드와, 프란시스와 아퀴나스와 같은 사람들이 창조영성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소위 이단들 예를 들자면 펠라기우스, 스코투스 에리우게나, 마이스터 엑카르트, 지오다노 부르노, 데이야르드 샤르텔은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였고 폭력을 경험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창조중심의 신비가들 예를 들자면, 힐데가드, 메히틸트, 엑카르트, 노리치의 줄리안, 쿠사의 니콜라스 그리고 이레니우스는 조직적으로 무시되어 왔다.²⁰⁾

이들은 이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건져내는 구속중심의 신학자들이 아니고, 신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변화되거나 갱신되어서, 전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길을 찾아 나섰던 사람들이다. 폭스는 이들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비 주류적 영성을 재구성하여 타락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신의 형상에 초점을 맞춘 ‘창조영성’을 구성한 것이다. 매튜 폭스는 이생에서 벗어나 피안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는 주류 기독교인 어거스틴의 타락/구속의 영적 구조를 벗어나, 신 안에서 신으로 성장 하는 창조영성의 이미지를 야곱의 사다리 모델을 극복한 사라의 원무 모델이라고 말하고 있

20) *Original Blessing*, p.248.

다.²¹⁾ 사다리를 타고 현세를 떠나는 초월 중심적, 피안 중심적 영성 야곱적 모델에서, 늙은 나이에 아이를 임신하고 기뻐서 춤을 추던 사라의 원무모델은 마치 수피의 창시자 루미가 세공업자의 은세공 소리를 듣고, 춤을 추었던 것을 연상시키는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기쁨의 춤인 것이다.

그렇다면, 창조영성적 시각에서, 상상력과 창의성은 신의 창조에 동참하는 역동적이고 거룩한 수행적 형태로 재평가 될 수 있다. 다음 단에서는, 창의성이 어떤 형태로 수행의 길이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접근해 보도록 하겠다.

III. 창의성: 영성 수행의 길

불교에서 팔정도를 사성제(四聖諦)를 성취할 수 있는 수행적 길道이라고 하며, 대승 불교에서는 보살도를 이루기 위해 육바라밀(六波羅蜜)을 도(道)로 삼는다. 마찬가지로, 창조영성에서는 네 가지의 수행적 길이 있다. “긍정의 길(Via-Positiva), 부정의 길(Via-Negativa), 창의성의 길(Via-Creativa), 변화의 길(Via-Transformativa)”이 그것이다. 특별히 이 논문의 주요 논제인 ‘창의성’의 논리는 긍정과 부정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다.

신학에서는, 신을 찾아나가는 방식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 전자를 신의 이름에 대한 긍정적 방식으로 찾아나가지만, 부정의 방식은 신에게 인위적 이름을 붙이는 것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찾아나가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 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지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지요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전형적인 긍정의 방법이다. 그런데 특별히 부정신학을 체계화한 위디오니시우스는 이에 관해서... 곧 “하나님은 반석이 아니다. 하나님은 요새가 아니다, 바위가 아니다...” 등의 부정의 법칙으로 읽어낸다. 물론 불교의 중관논리는 이런 2구비평 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바위이며 바위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하나님은 바위가 아니며, 바위가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4구비평까지 가면서, 인간의 알음알이를 벗어난 空의 주체성을 주장할 터이지만, 긍정과 부정의 길이 제시하고 있는 것 역시, 인간의 논리의식을 넘어선 신의 초월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긍정과 부

21) 폭스 매튜, 김순현 옮김, 『영성: 자비의 힘』(서울: 다산글방, 2002), 93쪽.

정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매튜 폭스는 이 전통을 언어적 논리가 아닌, 삶에서 마주하는 현상으로 재구성한다. 긍정과 부정을 삶의 체험적 영역 안으로 바로 끌어들인다. 이미 그는 영성을 “삶을 살아가는 방법(a way of life)”라고 했듯이 창조 안에 있는 모든 체험을 영성을 구성하는 재료로 받아들인다. 긍정의 길이란 세계와 우주를 긍정하는 것으로, 성서에서 신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 “좋았더라(it is good)”(창세기 1장)와 “생육하고 번성하라”(창세기 1장)를 그대로 받아, 타락/구속의 전통 하에서 성(性)을 통한 생육번성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고 있다. 전통적 기독교신학이 인간의 죄에서 출발하는 부정적 방식을 극복하며 긍정의 길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삶의 과정에서 고통과 부정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등장한다. 인간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도 종교학적으로는 악의 근원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과 삶 속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고난을 폭스는 “부정의 길”이라고 한다.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 감기에 걸려 몸에 면역체가 생겨나듯이 삶에 있어서 부정적인 것, 고난과 아픔은 생명체에게 필연적인 현상이다. 국가의 권력과 공동체의 권력도, 폭력과 힘에 의한 지배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감시와 통제기구가 생겨났지만, 반대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폭압적 제도와 구조를 만들어 왔고, 이것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이에 대한 저항과 이에 따른 아픔과 좌절도 ‘부정의 길’인 것이다.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긍정의 길과 부정의 길이 신의 이름과 그 상징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었지만, 폭스는 일상 현상의 체험 안에서 긍정과 부정으로 받아들였다. 음양의 상극적 에너지가 상보와 상생이 되어 자연과 우주를 만들어 나가듯, 창조영성은 긍정과 부정의 상극적 상태가 상생적 틀이 되어 “창의성”을 만들어 낸다고 통찰한 것이다. 그리고 이 예술적 창의성은 자비함, 곧 성서 안에 있는 신의 자비심과 같이 갈 때, 나와 주변을 변화시키는 예술적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네 번째 길인 변형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개인의 내적 구원이 아닌 공동체의 변혁이 창조영성의 궁극성인 것이다. 특히 창조영성의 세 번째 길인 창의성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창의성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폭스는 서양의 기독교가 ‘내면적 기도’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에 관해서 비판한다. 특별히 익나시오 로울라의 기도법에 관해서 비평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너무나도 자주, 명상은 내성적이고 내면적인 향했기 때문에, 익나시오 로울라와 같이 다른 이들의 상징과 이미지를 차용하여 ‘예수와 같이 배에 탔다고 생각해 보라,’ ‘십자가상의 예수 옆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라’

와 같은 또 다른 상징과 이미지를 만들어 내었다”²²⁾ 로올라의 기도법은 성경 안에 있는 사건이나 가르침 안에 상상을 통해 자신을 투입함으로 성경을 기도와 연결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그 이미지의 구성이 결국은 망상이 되어, 자신의 생각과 이미지가 사실같이 되어 머릿속에 각인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망상’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이미지를 버려내는 ‘관상기도’와 같은 형태의 침묵기도도 있지만, 폭스는 이를 “내면적 기도”(introverted prayer)라고 하면서 “오직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들의 삶이 특별한 시간에 하는 것”²³⁾이라고 했다. 특별한 사람들이란 수도사들이며, 특별한 시간은 수도원의 기도시간이다. 그는 창조영성이 특별한 사람을 위한 영성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영성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를 위한 기도의 방법이 바로 “명상으로서의 예술(art as meditation)”이며, 이것이 곧 “창의성의 길”인 것이다. 곧 음양의 교합이 만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긍정과 부정이 창의성을 분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폭스는 긍정과 부정의 에너지가 재구성되어 인간의 개체 중심적 이기심을 넘어 사랑과 자비로 통합되는 영적 비전(vision)으로 재구성되는 것이 ‘상상력’²⁴⁾이라고 말하지만, 세속적 창의력은 전쟁을 모사한 놀이로 타락했다고 말하고 있다. 폭스는 윌리엄 브레이크의 한탄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예술은 타락했고, 사람들이 이를 부인할 때, 전쟁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 전쟁과 전쟁 정신, 전쟁부채, 우리 안과 밖에서의 전쟁, 아타리게임의 전쟁 프로미식축구의 전쟁 이 모든 것이 상상력을 거부하고 억압하고 잃어버린 대가다”²⁵⁾ 예술적 상상력과 창의성이 억압됐을 때 전쟁과 싸움이 상상력으로 재구성되어 나온다는 것이다. 네덜랜드의 문화학자 호이징아는 ‘놀이’를 인간 문화의 원형이라고 해석하고, 창의성의 모태라고 이해했다: “말과 언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정신은 이 놀라운 명명(命名)의 기능을 가지고 놀이를 하면서 물질과 마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불꽃을 일으켰다. 모든 추상적 표현 뒤에는 대담한 은유가 깃들여 있는데, 이 은유라는 것이 실은 말을 가지고 하는 놀이이다”²⁶⁾ 인간적 삶의 토대가 언어 위에 세워져 있어 비트겐슈타인은 삶을 아예 ‘언어놀이’라고 하듯이 실로 열린 지평 위에서 다양한 놀이가 상상력의 뿌리가 되며 삶이 된다는 말이다. 삶 그 자체가 사실은 놀이라는 것이다.

호이징아가 밝혔듯이, 고대 그리스인들이 편을 가르며 즐겼던 언어적 대립게임인 아

22) 위의 책, 190쪽.

23) 위의 책.

24) 위의 책, 189쪽.

25) 위의 책.

26) 호이징아, 요한, 이종인 옮김, 『호모 루덴스』(서울: 연암서가, 2017), 36쪽.

곤이 특별히 서양문화와 문명 전반에 스며든 영역을 연구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 아곤적 놀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동등한 존재라고 받아들일 때, 놀이가 지속되면서 문명이 유지되지만, “가령 전쟁의 상대방을 인간이 아니라 야만인, 악마, 이교도, 이단자, ‘법률도 모르는 하등종족’ 등 인간적 권리가 박탈된 자로 여길 때, 그러한 전쟁은 놀이가 아니고 또 놀이의 특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전쟁의 양 당사자가 상대방의 명예를 존중하며 일정한 제약 사항들을 받아들일 때, 전쟁은 문명의 영역 안에 머물게 된다.”²⁷⁾ 호이징아가 말하는 전쟁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전면전이 아니고, 마치 고대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자신의 용맹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쟁을 해서, 이웃 부족의 전사 중 한 명을 사로잡으면 그 전쟁은 끝이 났다고 말하고 있다. 일종의 의례적 게임이었던 것이다. 전쟁포로는 다음날이 되면 포로를 풀어주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증오’가 아곤적 놀이에 침투했을 때, 전쟁은 더 이상 문명의 놀이가 아니라 야만이 된다는 말이다. 호이징아의 시각으로 폭스의 논리를 읽어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술적 상상력이 억압되어 상대 혹은 가상적 상대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게 됐으며, 이것은 전쟁게임과 스포츠로 확산되어 나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민족사회주의자들인 나치와 파시스트들에 의해 유대인과 슬라브인 집시 등이 증오의 대상이 되어 대량학살 됐다는 사실과 오늘날에도 기독교 극우주의자들과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증오는 문명 밖 야만의 현상들을 만들어 내면서 기괴한 음모론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을 볼 때, 긍정과 부정의 길을 도외시하며, 놀이를 억압한 인간의 창의력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서양적 전통의 계시적 직관과 함께 현대물리학과 동양의 화엄적 상즉상입 (相卽相入) 적 세계관을 알고 있는 매튜 폭스는 “창의성은 우주로부터 온다”고 하면서 “자연은 다양한 종을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각각의 개인을 다양화 시킨다. 같은 두 개의 날이 없고, 같은 두 개의 눈송이도 없으며, 같은 두 개의 꽃도 없고 나무도 없고 같은 종류의 생명체도 없다”²⁸⁾라고 말하고 있다. 이 다양성의 부딪힘과 포섭과 연결됨이 창의성을 만들어 내고 더더욱 다양성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창의성의 기원은 우주의 기원과 같다: “만일 우리의 창의성이 더 큰 창의적 에너지의 구조물이라면, 우리의 창의성은 139억 년 전 불꽃으로부터 출발했다.”²⁹⁾ 이런 과정적 사유방식은 불교의 연기론적 사유와 유사하지만, 앞서 밝힌 대로 마이스터 엑카르트가 표현한대로 창조는 “홀러나오나 성부안

27) 위의 책, 180-181쪽.

28) *Creativity*, p.44.

29) 위의 책.

에 있다”고 했듯이 우주는 신 안에서 흘러나온 피조물이며, 이들의 상호작용이 창의성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곧 사물의 ‘존재’는 신의 말씀 곧 내적 에너지가 끊임없이 전달되는 과정이다. 이 긍정의 에너지를 인간의 비움 곧 부정의 길을 통해 재구성하는 작업이 예술이다. 예술로써의 명상은 바로 이 자리에 위치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세상을 부정하고 초월하려는 타락/구속 전통의 이분법적 세계관을 넘어서야 하는 것은 물론이요, 세상과 우주의 다양성에 대해 더더욱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 장에서 예술로의 명상이 어떻게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에 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볼 것이다.

3. 명상으로의 예술교육: 상상력과 창의성의 예술적 성육화

위에서 밝혔듯이, 서양의 타락/구속 전통의 기초적 세계관은 인간의 세계와 신의 세계와의 분리다. 기독교적 전통 안에서는 분리를 죄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인간의 존재 자체는 죄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 인간의 세계와 신의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존재는 신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이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분리를 넘어 신과 하나가 될 수 없다, 혹은 구원이 불가능하다. 위에서 밝혔듯이 인간의 육체는 성욕을 통제할 수 없고, 이 성적 욕망에 의해 자손이 탄생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는 곧 죄악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 그 자체는 죄악 덩어리이니, 죄 된 인간의 몸을 학대하는 금욕주의(asceticism)가 신의 은총을 받아내는 수단이 된 것이다. 그러나 매튜 폭스는 ‘훈련’(discipline)을 금욕주의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물론 동아시아의 영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필자를 비롯한 우리의 환경에는 이런 금욕주의가 낫설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예술의 수행적 경지를 동양의 미학자 장충안은 노장과 불교의 예술정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예술가가 사물 안에 숨겨져 있는 실체를 보여줄 때, 그는 자유롭게 되고, 또한 자신을 해방하며 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은 중국 예술에 있어서 대단히 근원적인 것인데, 이를 道라고 한다. 마리탄은 동양과 서양의 예술에 대한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전자는 객체에 열중하고, 후자는 주체에 열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창의적 뿌리에 있어서는 논리적 일관성을 넘어서는 공통의 뿌리가 있는 데 그것은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되는 경험인 것이다³⁰⁾

30) Chang, Chung-yuan, *Creativity and Taoism*, (London: the Julian Press, 1965), p.14

내면에 비추어진 하늘과 산을 붓으로 터치하여, 나와 붓과 마음에 비추어진 사물이 하나됨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것이 본래 우주적 에너지 혹은 신적 에너지와 하나 되는 것이며, 이 예술적 삶이 피상적인 자아를 넘어 우주정신 곧 도(道)와 합일하는 작업이다. 도와 불성이 이원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는 동양의 세계관에서, 훈련이란, 곧 하나 됨을 밝히 드러내는 일이다. 불교미학자인 야나기 무네요시는 본래 불성이라는 인간의 내면을 미학적 시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미의 법문’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알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본성이 미추를 초월하여 있으면 누구든 무엇이든 구원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구원은 약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미와 추의 다툼에 몸을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구원은 구원될 자격을 갖추어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완전한 자격을 갖추 수 있을 까요. 그래서 부처가 그 자격을 갖추어 인간을 맞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구원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추를 초월한 불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본연의 성을 떠나서 진실한 미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가르치는 것이 ‘미의 종교’입니다.³¹⁾

인위적이며 인공적 미(美)가 아닌, 투박하고 진솔한 아름다움을 전달한 강경의 막사발을 최고의 도자기로 칭한 그는 또한 전남 운봉에서 목기를 만드는 목공과의 대화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과거 한국을 여행 했을 때, 그 산골 [운봉]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우리들의 상식에 의하면 모든 목기는 일단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이삼년 정도 건조시키고 나서 본격적으로 성형을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이 갈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운봉의 공방에서 본 장면은 싱싱한 소나무의 큰 나무를 그대로 물레에 걸어, 순식간에 깎아서 단숨에 만들어 마무리한 것이다. 생나무이므로 배어 있던 물기가 튀고, 보고 있는 우리들의 얼굴에도 튀어 그 향기가 주위에 가득 찼다. 이런 생나무를 바로 깎아도 괜찮을까? 나의 상식은 이런 의문을 품었다. 그래서 장인에게 물어봤다

“생나무로 깎으면 깨져 버리지 않습니까?”

31) 무네요시, 야나기, 최재목 외 옮김, 『미의 법문』(서울: 이학사, 2005), 21쪽.

조선인은 나의 이 질문에 오히려 의아한 얼굴을 했다. 그리고 반문했다. “깨지면 안 되는가?”

나는 이 대답을 듣고 의아했다. 뜻밖의 대답에 식은땀이 났다.

나는 다시 물었다

“깨지면 곤란하지 않나요?”

나의 이 상식적이 질문에 또 다시 훌륭한 대답이 돌아왔다.

“깨지면 고치면 되지”

그는 나와 선문답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때의 대화는 분명히 나의 패배였다.³²⁾

정교하게 만들려고 하는 인위성을 넘어 섰을 때 곧 “불완전함이 실은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정확하고 똑바르게 깎은 형태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멋이 있다. 모든 조선의 기물의 아름다움의 근원은 바로 이러한 곳에서 오는 것이다.”³³⁾ “평상심을 설하는 자력문”³⁴⁾을 표현한 작품이야말로, 최고의 예술작품이라는 것이다. 주객일치와 본래 불성을 표현하는 것이 훈련이고 예술작품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인위성을 잊는 ‘부정의 길’을 통과하여 해탈과 속세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여여(如如)함의 자유로움이 노장과 불교가 중심이 된 동아시아의 예술적 정신이라고 야나기는 말하고 있다.

불성과 자연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여여함이 불교와 동아시아에서 추구하는 예술 정신이라고 한다면, 매튜 폭스는 프랑스의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를 인용하면서, “위대한 몽상가는 세상과의 친밀성이 있다. 우리 안에 위대한 예술가는 친밀함을 나누고 자신의 친밀함을 세상으로 보내며, 공동체를 자신의 내적 경험으로 충만하게 한다.”³⁵⁾ 세상과 우주와의 분리가 아닌 친밀성은 예술적 상상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대 한국의 교육과정 속에서 이런 우주적 연기론과 창의성은 배우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서구에서 흘러 들어온 이성 중심의 합리주의적 지식이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으며, 특별히 기독교인인 경우,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교회와 사회라는 지나친 이분화 덕분에, 구원은 오직 죽음 이후에만 가능한 무엇으로 이해되어 왔다.

32) 무네요시, 야나기, 김명순 외 옮김, 『야나기 무네요시의 민예, 마음, 사람』(서울: 컬처북스, 2014), 37-38 쪽.

33) 위의 책, 38-39쪽.

34) 야나기, 앞의 책, 38쪽.

35) *Creativity*, p.3.

마찬가지로, 폭스는 미국의 교육 현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현대 유럽의 교육적 과제는 최근의 것이다. 이는 지구를 정복하고 다른 민족과 문화를 억압하라고 가르쳤지만, 생존 곧 지구와 협력해서 살아내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 교육과제는 윤리와 미학을 가르치지 않았으며, 존경과 관용을 가르치지 않았고, 경외심도 가르치지 않았으며, 아이들에게,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았다. 곧 지혜를 없애고, 현실에 적용할 실용적 지식만을 가르친 것이다.³⁶⁾

폭스는 유럽과 미국의 교육 과제가 ‘최근’의 것, 곧 근대 이후에 탄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이분화시킨 서양의 타락/구속의 영성 전통을 넘어서, 기독교의 변방 전통인 창조 중심의 전통을 회복하려 하는 것이며, 위에서 밝혔듯이, 지구를 대상화 하지 않고 그 안에 살며 협력하는 관용과 윤리의 삶, 그 안에서 탄생하는 아름다움과 경외감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안에서 탄생한 학문이라는 것은 “지구가 우리 주변에서 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비판하고 관념화 시키는 현대의 아카데미를 토마스 베리는 반영적 야만주의라고 했다… 토마스 베리가 말하길 대부분의 지구의 파괴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자행되었다”³⁷⁾라고 말한다. 우리로 말하자면, 동아시아의 영성전통과 그 안에서 나온 미학을 다시 꺼내 수행해야 하는 것이고, 폭스에게는 서양의 창조영성의 전통을 다시 발굴하여, 동양의 전통과의 창조적 대화를 재개해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폭스는 네 가지의 교육적 지향점을 말하고 있다. “첫째로는 우주론의 회복이며, 둘째는 비움의 훈련, 셋째는 창의성, 넷째는 자비심”³⁸⁾이 그것이다. 이미 위에서 밝힌 바 있듯, 폭스는 창조영성의 네 가지 수행적 길을 통해 교육을 갱신하겠다는 말이다. 특별히 창의성의 교육에 관해 폭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일 교육을 “끌어내는 것(라틴어 educere의 뜻이다), 학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아이들에게 창의성을 끌어내는 것이다. 학교의 임무는 학생들에게 “너는 그림을 그릴 수 없어, 노래할 수 없어, 춤 출수 없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술적인 부분

36) 위의 책, p.201.

37) 위의 책.

38) 위의 책, pp.200-212.

과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뽑아내는 것은 후차적 일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확신과 믿음 그리고 용기를 심어주는 것이며, 이것이 있을 사람은 혼돈과 싸울 힘이 생기고, 그 혼돈을 변화시켜 창의성과 존중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³⁹⁾

“확신과 믿음과 용기”가 내면에 있는 창의성을 끌고 나와 삶에서 필연적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는 것은 혼돈을 창의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다. 이런 창의성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그리던, 무엇을 만들던, 어떤 춤을 추던, 용기를 주고,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⁴⁰⁾라고 말하고 있다. “창의성은 즐거움이다”⁴¹⁾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창의성은 즐거움이다. 교실에서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즐거움은 오늘날과 같은 현대 이후주의 시대, 어느 곳에도 있다. 위급한 상황일수록, 우리 삶과 문화에 있어,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상상력이 들어오도록 하고, 즐거움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 즐거움이 되돌아올 때, 판타지가 적절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수많은 선택지들이 생겨나며, 가능성들이 되돌아온다. 희망이란 곧 가능성이기에 절망이란 불가능성이기에, 즐거움에 의해 희망이 생겨나는 것이다. 창의성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절망을 몰아내는 것이다. 창의적 교육은 낙관주의가 아닌, 희망을 만들어낸다.⁴²⁾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 Abraham Maslow의 말을 통해 “창의적 예술 교육은 예술가와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아이들이 전인적인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는 예술 교육이다”⁴³⁾라고 말한다. 곧 즐거움의 열린 교실에서, 수많은 상상력들이 예술을 통해서 공유되고, 이것이 희망과 가능성들을 만들어 낼 때, 전인적 인간이 되는 구원의 사건이 발생하며, 새로운 영성으로 도약하게 된다는 말이다.

폭스는 이 예술 교육을 단지 학교에서의 교육만 말하고 있지 않다. 그가 학장으로 있었던, 창조 중심의 영성연구소(ICCS: Institute of Creation Centered Spirituality)에서 위에서 밝힌 창의성 교육을 영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중에서, “37세의 가정주부가

39) 위의 책, p.207.

40) 위의 책.

41) 위의 책, p.208.

42) 위의 책.

43) 위의 책, p.210.

진흙을 영성교육에 사용한 결과, 집에 들어가 남편의 몸에 손을 대었을 때, 마치 처음으로 남편의 몸에 손을 댄 느낌⁴⁴⁾이라고 했다. 음란물이 마치 성(性)과 사랑의 대체하고 있는 시대에, 사랑도 예술적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한 학생은 폭스에게 와서, “나는 진흙과 6주 동안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이 때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요. 어느 날 내가 지쳐서, 진흙과 싸우는 것을 멈추었을 때, 나는 비로소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⁴⁵⁾” 이때, 피아노를 통한 명상을 배우고 있는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7주 동안 건반과 싸우고 또 싸웠다 너무 지쳐, 내 머리로 건반 위에 올려다 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일어났을 때, 내 생애 처음으로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⁴⁶⁾ 폭스는 이에 관해 평가하면서, “바로 이 증언들은 왜 예술이 강력한 치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곧 진흙이나, 피아노 건반이나, 춤이나 그림의 색깔이나 이야기놀이나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이다”⁴⁷⁾

하늘과 땅, 구원의 영역과 구원 받아야 할 영역, 영과 육의 이분법적 사유구조는 서양의 보편적 구조라기보다, 타락/구속의 영성 전통이 지배하는 기독교의 영향 하에 서구에 이식된 것이다. 물론 그 원형을 찾아 내려가다 보면, 영지주의적 영육 이원론이며 서양의 영성전통 안에도, 창조영성의 불이(不二)론적 뿌리와 상극적 세계관이 아닌 상보적 세계관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세계관은 상상력과 창의성을 통한 예술정신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특히 창조영성 연구소에 참여한 로버트 맥닐이라는 학생은 예술적 명상 수업에 참여하면서 피조물을 다시 보게 되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피조물은 선과 색깔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는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피조물은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고, 나 역시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뭇잎을 보고, 풍성과 나무 물줄기를 봅니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냥 지나쳤기에, 이들은 나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피조물들은 나로 하여금 결코 방해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조물들은 그들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44) *Original Blessing*, p.194.

45) 위의 책, p.195.

46) 위의 책.

47) 위의 책.

결국 이 아름다움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도 깨닫게 됐죠. 내가 이들을 지나칠 때마다,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내 자신의 정체성과 아름다움을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다른 것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나는 피조물과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피조물의 선과 색과 공간을 깨닫게 됐죠. 이들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창조물을 구성하는 이 선과 색과 모양을 힘을 다해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고통스럽지만, 모든 것이 하나로 결합되기 시작했고, 나는 이들에게 내 공포를 말했고, 이들은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순간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오직 이 아름다운 창조의 부분을 그려내기로 했죠. 이 과정에서 나는 나를 알게 됐습니다. 나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고요함을 체험했습니다. 시간은 알게 모르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기도였던 것입니다.⁴⁸⁾

예술로서의 명상은, 눈에 보이는 사물을 다시 구성하게 됐다고 하면서, 특별히 신의 창조를 보는 눈을 회복하게 됐다는 것이다. 불교식으로 보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림이 그에게 가장 깊은 기도였음을 보여준다. 예술이 영성교육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말이다.

불교적 좌선과 유교적 정좌 기독교적 관상기도 혹은 경전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영성교육의 전부가 아니라, 상상력과 창의성에 뿌리를 둔 예술교육은 더더욱 많은 사람들을 수행과 영성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IV. 결론

이 글은 서구의 영성 전통에 있어서 창의성이 왜곡된 이유를 밝혔다. 기독교의 타락/구속의 영성 전통의 시각에서 볼 때,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신이 구원해 준다는 시각은 결국 인간의 자발적인 창의성을 왜곡시켰고, 이로써 인간은 수동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비우고 하늘만 바라보는 기도와 영성이 서구의 주류였다고 했다. 이 논

48) 위의 책, p.196.

문은 창조영성을 소개하면서, 신의 창조와 그 창조의 장 안에 있는 인간의 창조는 신의 섭리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 논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의 이분법적 분리에 기초한 타락/구속의 영적 전통이 아닌, 신의 창조영역이 인간의 영역과 일치하는 불이론적 세계관이 필요하다. 사실 타락/구속의 영성 전통과 창조영성의 전통은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매튜폭스는 서구에 있어 창조영성의 전통을 재구성해서 소개함으로써, 신의 창조에 참여함으로써, 자신과 공동체를 바꾸는 창의성의 길이 영성수행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물론 이런 작업은 인문적 소양조차도 도외시되고 있는 한국의 교육 현실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영성의 지평을 더더욱 넓혀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글 중간 중간에도 창조영성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동아시아의 영성을 소개했지만, 이미 다종교적 사회에 던져진 한국의 기독교가 진정한 세계 종교적 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존 캡의 말과 같이 다른 문화와 종교를 ‘자기화’ 시키는 작업이 중요할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진리를 신뢰하며 듣는 것은 그 진리에 의해 우리가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슬람교의 진리에 대해 듣는다면, 우리의 기독교적 증언은 과거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이슬람교의 진리를 실제적으로 들어온 사람만이 그들로부터 진지하게 들었던 것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나아가 다른 종교적 진리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진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변형되는 기독교인들만이 거짓된 제국주의는 털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⁴⁹⁾

존캡의 시각인 과정적 인식론에 의하면, 다양한 현실적 존재들이 ‘합생’하고 이것이 다시 현실적 존재가 되어 새롭게 합생하는 연속적 과정이 인간을 비롯한 이 우주의 모습의 표현이며, 실체는 과정적 ‘현상’이라고 인식한다. 이렇게 보면, 종교 역시 이 과정에 있는 것이며, 이 합생의 과정을 현실적 존재인 이웃종교의 자기화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당연한 과정을 거부하고 혼자 외마로 떨어진 실체, 캡의 논리를 따른다면 ‘거짓된 제국주의’는 결코 보편적 진리에 설 수 없고, 스스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49) 캡, 존, 이경호 옮김, 『기독교와 불교의 대화와 대화를 넘어서』(서울: 이문 출판사, 2010), 18쪽

그래서 이 글은, 창조영성과 창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필자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의 영성 전통을 해석의 틀로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또한 기독교인인 필자의 영성과 인식의 지평은 더 넓어질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위에서 잠시 소개한 야나기의 불교적 미학을 통해 영성적 깊이를 표현한『미의 법문』과 같이 동서양의 영성적 수행에 있어서 예술과 상상력을 더 깊게 연구한다면, 영성수행에 있어서의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사랑과 자비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것이다. 이제 이 새로운 길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자 자신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참고문헌

- Chang, Chung-yuan, *Creativity and Taoism*, (London: the Julian Press, 1965).
- Fox, Matthew, *Original Blessing*, (New York: Jeremy P. Tarcher/Putnam, 2000).
- _____, *Creativity* (New York: Jeremy P. Tarcher, 2002).
- _____, *Meister Eckhart: A Mystic-Warrior for Our Times*, (Novato, Ca: New World Library: 2014).
- Joseph Hoffmann and others, *Modern Spiritualities: An Inquiry*, (Oxford, England: Prometheus Books, 1997).
- Mary Heather MacKinnon and Moni McIntyre ed., *Readings in Ecology and Feminist Theology*, (Kansas City: Seed & Ward, 1995).
- Ursula King, "Spirituality in a Postmodern Age," in *Ursula King ed., Faith and Praxis in a Postmodern Age*, (London: Cassell, 1998).
- 길희성, 『길은 달라도 같은 산을 오른다』(서울: 휴, 2013).
- 무네요시, 야나기, 최재목 외 옮김, 『미의 법문』(서울: 이학사, 2005).
- _____, 김명순 외 옮김 『야나기 무네요시의 민예, 마음, 사람』(서울: 컬처북스, 2014).
- 진중권,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서울: 휴머니스트, 2005).
- 갑, 존, 이경호 옮김, 『기독교와 불교의 대화와 대화를 넘어서』(서울: 이문 출판사, 2010).
- 크로산, 도미닉,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서울: 한국 기독교연구소, 2015).

- 페이걸스, 일레인, 『아담, 이브, 뱀』(서울: 아우라, 2009).
- 폭스 매튜, 김순현 옮김, 『영성: 자비의 힘』(서울: 다산글방, 2002).
- 플라톤, 박종현 옮김, 『국가』(서울: 서광사, 2017).
- 호이징아, 요한, 이종인 옮김, 『호모 루덴스』(서울: 연암서가, 2017).
- 정낙림, 『놀이하는 인간의 철학』(서울: 책세상, 2017).

원고접수일: 2018년 1월 13일 심사일: 2018년 2월 8일 게재확정일: 2018년 2월 21일

연구자소개: 최대광

① 전공: 종교학, 영성신학 / 소속: 감리교신학대학교

② 관심영역: 신비주의, 영성, 의식진화, 사회운동

③ 주요논저: 「마이스터 엑카르트의 성육신적 영성연구」, 「교회와 권력: 말함과 침묵의 권력배치」, 「Reconstruction of Korean-Christian Experience in Post-Colonial Era: Understanding Edward Said's Orientalism and Lee Jung Young's Theory of Marginality」, 「기독교의 관용과 신비적 체험을 향한 영성 다원주의: 신중심의 종교다원주의를 넘어, 기독교 근본주의를 넘어서-미국과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교육적 대안」 외 다수

④ E - mail : d-kchoi@hanmail.net

Abstract

The Problem of Creativity in Spiritual Education:
Religious Understanding of Creativity in Creation Spirituality

Choi, Dae Kwang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Meditation and contemplation has been universal way of spiritual practice, but creativity has not been a major part in religious education. Introducing American spiritual theologian, Matthew Fox's Creation Spirituality, this thesis highlights creativity is an important part of spiritual practice. This thesis makes a critique on Fall/Redemption spirituality which separates human from God and flesh from spirit. By doing so, it makes human nothing but sinner, and it should passively wait only God grace. This spiritual structure has oppressed human creativity. Through Creation Spirituality, this thesis introduces non-dual field of spiritual energy between God and human, the creativity and artistic spirit sprouting out from the field is the center of spiritual practice. Introducing an education about creativity and students' feedback, this thesis assures that creativity must be practiced in spirituality, and education for creativity should be done in school and church.

Key Words: Christian Spirituality, Christian Theology, Creativity, Play, Meditation, Religious Studies